

“농촌과 지역공동체에 활기를 ” 금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호 성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람 간 교류가 많은 도시에 비해서 농촌과 소도시는 구직,구인난이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는, 청년층의 지역 이탈 가속화를 야기하고 있다. 청년계층의 취업을 위한 도시이동현상으로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에 직면한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을 목표로 하는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인 '금산군농촌신활력플러스' 와 관련하여 담당자 이경은님과 서면인터뷰를 진행했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인터뷰를 진행하였음).

“금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촌 지역의 자립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람과 조직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외부의 주체가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과공유회 현장 '금산군 다락원' (사진제공: 금산신활력플러스사업단)

담당자는 본 사업이 추진된 계기에 대해서, 기존에 농촌에서 진행되던 지원사업들은 건물 등의 하드웨어적인 건설을 주로 지원하는 사례가 많았음을 언급했다. 정작 건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는 운영주체가 없어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 진행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지원 대상을 명시해두는 하향식 지원이 아닌 상향식 지원사업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향식 지원 과정을 통해서 본 사업은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스스로 기획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속에서 주민참여로 발굴된 의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본 사업단이 맡고 있다.

실제 진행된 사례들에 대해서 먼저 금산한마음야학(대표 박남하)을 예로 들었다. 작년 액션 그룹으로 참여하면서 지속적인 교육 및 컨설팅을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최종적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이다. 귀농 및 귀촌 강사동아리와 함께 취약 계층 및 지역주민들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교과목지도 수업을 제공하고, 주말 및 야간에 수업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는 금산군 지역 내 강사들과 함께 자격증, 취미반 수업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닝의 작업 현장 (사진제공: 금산신활력플러스사업단)

또 다른 기업은 그리닝(greening : 대표 김기현)이다. 올해 어우름학교 사업에 참여한 팀으로서 금산인삼의 브랜드이미지 개선과 인삼 판매와 관련하여 새로운 마케팅 전략구성을 연구하고 MZ세대를 위한 홍삼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

력을 한 팀이다. 짧은 시간과 적은 사업비로 시제품을 만들어냈고, 설문조사까지 진행하면서 향후 사회적경제기업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으며 금산의 젊은 피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고 있는 팀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보드아리(대표 길선미)는 신생 동아리로서, 올해 금산지역 내의 강사선생님들로 구성된 팀이라고 한다. 보드게임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약계층 및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처음에 사업계획서도 서툴고 회계처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결국에는 팀원들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었음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담당자의 뿌듯함이 전해졌다.



보드아리 어르신 봉사(사진제공: 금산신활력플러스사업단)

사업에 대해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점은, 다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좀 더 많은 사례를 안내하고, 활동의 목표와 방법을 참여 기업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 주민 조직을 육성하고 공익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덧붙였다.

“앞으로의 목표는 사업의 진행 과정 속에서 다수의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해냄으로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고 싶습니다.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의 자원이 원활하게 유통되서 지역자립성과 지역의 공

동체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금산농촌활력플러스사업이 기존 사업이 가진 한계성을 넘어, 다양한 민간 자발 조직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자립성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반을 확보 함하여 궁극적으로는 농촌 지역 낙후 문제와 도시 간의 경제 격차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해 본다.